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본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왕력」의 비교연구

조경철*

〈차례〉

1. 머리말
2. 재위연수 계산과 칭원법
3. 피휘법의 비교연구
4. 국호의 비교연구
5. 맺음말 -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본의 의의

〈국문요약〉

본 글에선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본 『역대연표』와 『삼국유사』의 「왕력」 그리고 『삼국사기』의 연표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특히 왕위 재위연수와 칭원법, 피휘의 방법, 국호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삼국유사』 「왕력」은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삼는 유년칭원법이고, 『역대연표』는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삼는 즉위년칭원법과 유년칭원법이 같이 쓰였다.

둘째, 칭원법의 구분은 재위연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위한 해를 재위연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즉 1년이 적으면 유년칭원법이고, 즉위한 해와 죽은 해를 모두 재위연수에 포함시키면 즉위년칭원법이 된다.

셋째, 왕명에 간지가 병기되면 마치 이 해가

즉위한 해로 오해할 수가 있다. 왕명에 간지가 병기되면 이해가 즉위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즉위한 다음 해 곧 유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왕명에 간지가 병기되면 재위연수와 같은 주변 조건을 감안하여 즉위년칭원인지 유년칭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넷째, 『삼국유사』 「왕력」은 피휘가 불철저하지만 피휘를 할 경우 무(武)대신 호(虎)를 쓰는 대자(代子)피휘를 하였고, 『역대연표』는 피휘가 철저하게 지켜졌고 피휘는 한 획을 줄인 결획피휘를 하였다.

다섯째, 『삼국유사』 「왕력」은 고구려 대신 '고려'란 국호를 사용하였고, 『역대연표』는 『삼국사기』를 따라 '고구려'란 국호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역대연표』에서는 신라의 진지왕을

* 나라이름역사연구소 소장,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한국사.

누락시켰지만, 『삼국유사』는 진지왕이 주인공인 '도화녀와 비행랑'조를 두었다.

이상의 검토결과 『삼국유사』 「왕력」과 『역대연표』가 서로 참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편찬자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대연표』는 중국, 요금원, 발해, 일본 등을 연표에 포함시켜 이전 연표와 다르게 세계사적 지평을

열어주었다.

『역대연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자료로 해인사 사간판본에 의해 알려진 존재다. 고려 후기 대장경 연구는 팔만대장경이 위주였으나 대장경과 별도로 판각된 사간판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대장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역대연표, 삼국유사 왕력, 삼국사기 연표, 창원법, 피휘, 국호

1. 머리말

경남 합천 해인사에는 고려 고종 때 조판한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과 별도로 해인사 사간판본도 다수 보존되어 있다. 이 사간판본은 일제강점기 일인학자에 의해서 부분적인 소개와 연구가 있었다.

1937년 해인사 고려대장경을 인경할 때 동감(董監)했던 최범술은 이때를 이용해 고려대장경판 이외의 해인사 사간판본을 빠짐없이 인간한 후 책으로 묶고 간단한 서지사항을 적어두었다.¹⁾ 현재 인간한 이 해인사 사간판본은 연세대 도서관에 보관중이다. 이 글에서 살펴 볼 『역대연표』는 이 사간본의 139책 “여잡산판집기이(餘雜散板集其二)”에 ‘漢陽王朝世系’란 제목으로 실려 있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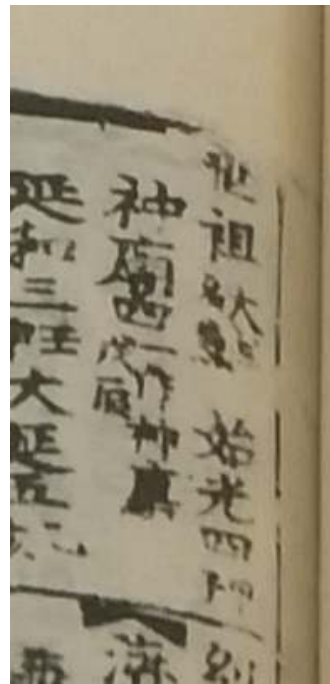
『역대연표』는 중국의 역대왕조와 우리나라 삼국과 고려의 역대왕조의 간단한 연대기이다.

1) 최범술, 『海印寺寺刊鑄板目錄』, 『동방학지』 11, 1970. 위 글에 의하면 최범술은 ‘書籍名目’을 총 No 1번부터 No 145번까지 총 145개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No 139책 『餘雜散板集其二』에 수록된 “餘雜類(其二)” 속에 들어있는 목록을 정리한 것 중에 ‘漢陽王朝世系’란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소위 『역대연표』이다. 『역대연표』란 이름은 이것을 맨 처음 소개한 박상국이 편의상 지은 이름이다. 그런데 한양왕조 곧 조선시대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 이 부분을 최범술이 왜 이름을 ‘漢陽王朝世系’라 이름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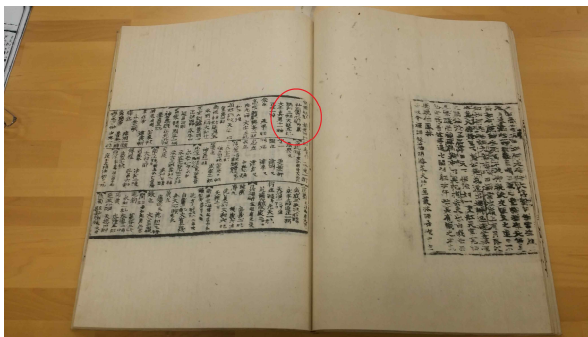
그런데 연세대에 소장된 해인사 사간본 139책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편집과정에서 책장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다. 원래 본 자료는 시대 순서 상 중국 후주에 해당하는 ‘周 □□ 太祖 ……」로 시작되어야 한다[그림 4]. 그런데 연세대 소장본 139책은 ‘世祖 ……」로부터 시작된다[그림 2, 3]. 이 세조는 중국 북위의 세조이다. 그런데 이를 조선왕조의 세조로 착각하고 “漢陽王朝世系”로 제목을 달았을 가능성이 높다. 1930년대 최범술이 급하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인다.



〈그림 1〉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본 139책, 여잡산판집기이 (餘雜散板集其二).



〈그림 3〉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본 139책 처음 부분 확대. 세조로 시작된다.



〈그림 2〉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본 139책에 수록된 『역대연표』의 처음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

일찍이 『삼국사기』의 「연표」와 『삼국유사』의 「왕력」과 상호 비교되어 왔다.²⁾ 특히 『역대연표』가 간행된 인흥사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스님이 1264~1277년까지 주석했던 절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역대연표』와 『삼국유사』의 연관성을 재위연수와 칭원법, 피휘, 국호 등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2. 재위연수 계산과 칭원법

왕이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삼는 것을 즉위년칭원법,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삼는 것을 유년칭원법이라고 한다. 재위연수에 따라 1년의 차이가 난다. 즉위년을 재위연수에 포함시키는 즉위년칭원이 그렇지 않은 유년칭원보다 재위연수가 1년 더 길다. 즉위년칭원법인 『삼국사기』는 신라 법흥왕의 경우 514년에 즉위하여 540년에 죽었다. 재위연수는 27년이다. 반면 『삼국유사』 「왕력」에는 514년에 '立'하여 26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다. 서로 재위연수에 1년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왕력」의 경우 1년이 짧아진 것은 몰년인 540년을 제외한 것으로 보고 1년이 더 짧지만 즉위년칭원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 왔다.³⁾ 반면 「왕력」에서 1년이 줄어든 것은 유년칭원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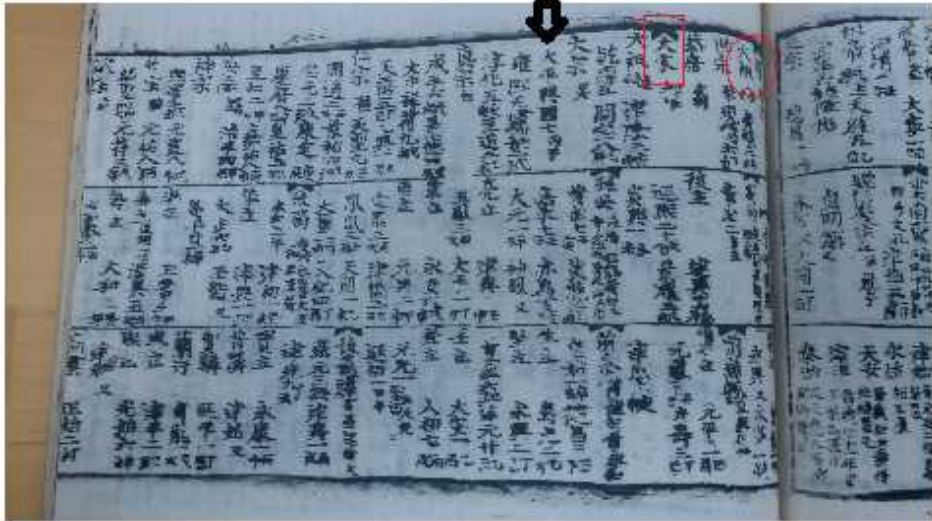
『역대연표』는 좀 복잡하다. 『역대연표』를 처음 발굴하여 본격적인 논문을 발표한 채상식은⁵⁾ 본 자료가 신라, 전고려(=고구려)⁶⁾, 백제 삼국의 경우 『삼국사기』 「연표」의 방식

2)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자가 같다는 입장(채상식, 이효형), 서로 관련성이 많다는 입장(이부오), 다르다는 입장(김상현, 이근직, 박미선)으로 나뉜다.

3) 채상식, 「지원 15년(1278) 인흥사간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고려사의 체문제』, 삼영사, 1986(「인흥사간 역대연표와 삼국유사의 찬술기반」,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에 재수록). 이 글에서는 1991년 판을 인용했다. 채상식, 「인흥사간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삼국유사 목판 복각사업의 문화적 의의와 전망 학술발표문, 경상북도 군위군, 2014 ; 이강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2005 ; 박미선,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의식」, 『역사와 현실』 70, 2009 ; 이부오, 「삼국유사 왕력에 나타난 기년인식의 배경」, 『신라사학보』 32, 2014.

4) 김상현,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 - 왕력 편자에 대한 의문 -」, 『동양학』, 1985 ; 김상현,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조경철, 「역주 삼국유사 왕력편의 성과와 문제점 - 일본본, 「정문연본」, 「고대본」의 왕력편을 중심으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행 「역주삼국유사」의 성과와 문제점』(I),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학연구센터 국내학술회의 발표문, 2014.6.26.

5) 본 자료의 존재는 윤병태(1969), 천혜봉(1979), 박상국(1982) 등에 의해 『역대연표』란 이름으로 알



〈그림 4〉 『역대연표』의 순서를 맞추었을 때 처음부분에 해당하는 해인사 사간본 139책 '한양왕조세계의 일부분. 주(周)와 대송(大宋), 동그라미와 네모 친 부분.

을 따라 재위연수를 계산한 반면 고려의 경우는 1년이 짧게 기재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역대연표』 고려의 경우 재위연수가 『고려사』, 『고려사절요』와 일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유년칭원으로 보지 않고 『왕력』처럼 즉위년칭원법에 의거하여 즉위년에 해당되는 간지를 왕명예다 병기했다고 하였다. 재위연수가 삼국과 고려 사이에 1년 차이가 있지만 모두 즉위년칭원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⁷⁾

그는 『역대연표』에 두 개의 재위연수 계산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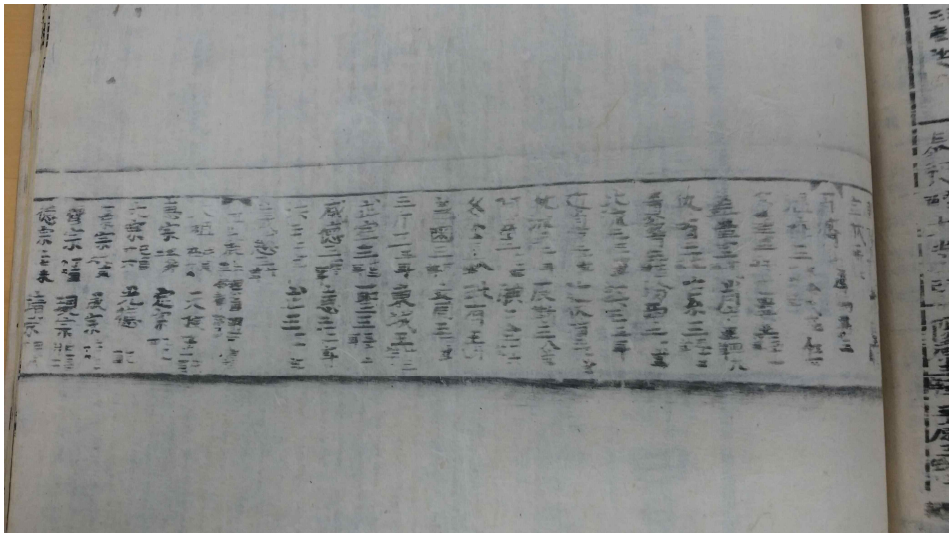
러져 있었다.

6) 고구려는 4~5세기를 전후하여 국호를 고려로 바꾸었거나 적어도 고려란 국호를 같이 사용하였다. 필자는 고구려가 고려로 국호를 변경한 것을 존중하여 고구려를 고려로 부르고 왕건의 고려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고려라 부르고자 한다. 다만 원전에 고구려라고 나올 경우에 한하여 '고구려'라고 하였다. 『삼국유사』 「왕력」에도 고구려가 아닌 '고려'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선 다음 글을 참조. 정구복,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대한 一考 - 三國史記의 기록과 관련하여 -」, 『호서사학』 19·20, 1992 ; 『한국고대사학사』, 경인문화사, 2008 ; 박용운, 「국호 고구려·고려에 대한 일고찰」, 『북방사논총』 창간호, 2004 ; 「국호 고구려·고려에 대한 일고찰」, 『고려의 고구려 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2006 ; 조경철, 「역사계승의식과 정체성의 경계 - 고려 국호를 중심으로 -」,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서』, 경인문화사, 2012.

7) 채상식, 앞의 글, 1991.

종합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다. 채상식은 「연표」, 「왕력」, 『역대연표』가 모두 즉위년칭원법이
며 재위연수 계산방식이 다르다고 하였다. 즉위년칭원의 근거로 왕이 즉위한 해 간지를 병
기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상현은 “삼국의 경우 모든 왕의 재위연수에 있어서 『역대연표』가 「왕력」
에 비해 1년씩 적다.⁸⁾ 이것은 신왕 원년의 해를 정함에 『역대연표』는 당년칭원법을 택했
음에 「왕력」은 익년칭원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겨난 차이이다. 이것은 역사서술 방법에 있
어서 중요한 차이이다.”⁹⁾ 라고 하거나, 박미선은 “삼국의 경우 이렇게 볼 때 『역대연표』는
『삼국사기』 「연표」를 참조해 찬술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왕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¹⁰⁾라고 하거나, 조경철은 “『삼국사기』가 왕의 재위연수를 즉위년칭원법에 근거하였
다면 「왕력」은 유년칭원법으로 왕의 재위연수를 『삼국사기』보다 1년 짧게 하였다.”¹¹⁾라
고 하거나, 이부오는 “왕력은 즉위년칭원을 원칙으로 사망년을 재위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다. 이를 통해 찬자는 왕대별 재위연수와 합을 왕조의 존속기간과 일치하도록 방향을 설정
한 셈이다”¹²⁾라고 하였다.



〈그림 5〉 해인사 사간본 『역대연표』 백제(오른쪽 2번째 줄부터), 고려전반부(왼쪽 7번째 줄부터).

8) 의미상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되어야 한다.

9) 김상현, 앞의 글, 1985, 230쪽.

10) 박미선, 앞의 글, 2009, 158쪽.

11) 조경철, 앞의 글, 2014, 15쪽.

이상 『삼국사기』의 「연표」와 『삼국유사』의 「왕력」 그리고 『역대연표』의 칭원법과 재위 연수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았다. 『삼국사기』 「왕력」의 경우 재위연수 1년의 차이를 채상식 등은 칭원법의 차이로 보지 않았지만 김상현, 조경철 등은 유년칭원법으로 보았다. 「왕력」과 『역대연표』를 모두 검토한 김상현은 『역대연표』의 삼국의 경우 재위연수가 「연표」와 같으므로 유년칭원인 「왕력」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유년칭원은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하기 때문에 즉위년칭원법과 달리 재위연수가 1년이 줄게 된다. 그런데 재위연수가 1년이 적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유년칭원으로 보기에 는 문제가 없지 않다. 채상식의 견해대로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삼고 물년을 재위연수에서 제외해도 1년이 줄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위연수를 가지고 칭원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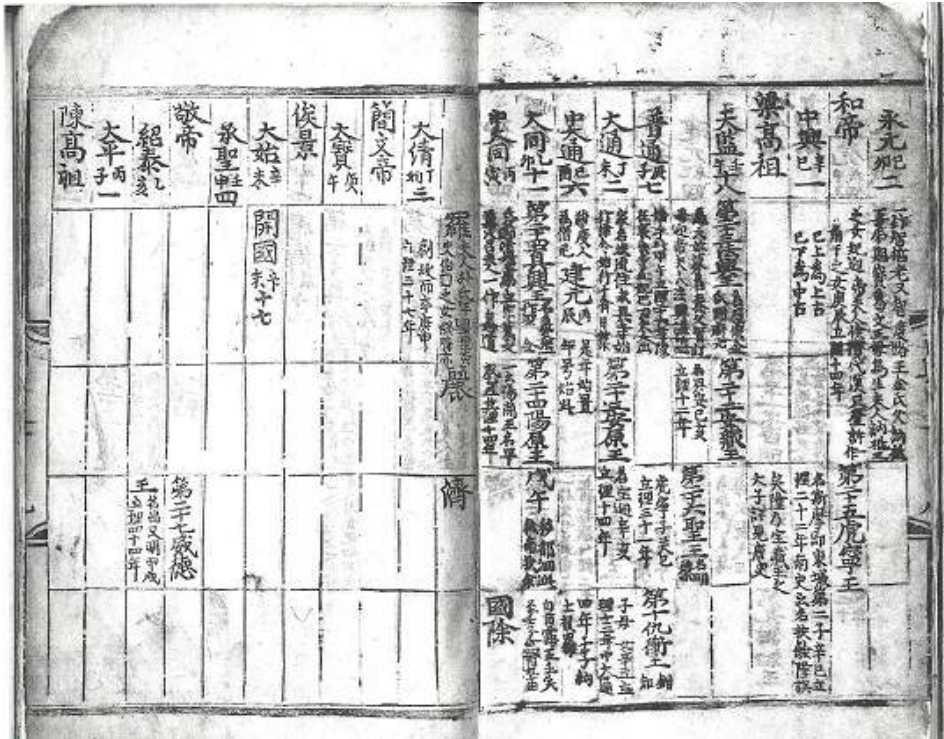
우리는 여기서 유년칭원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였을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굳이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왕의 물년을 존중해 주려는 의도에 있다. 하늘에 해가 두 개일 수 없듯이 한 해에 두 임금이 다스릴 수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왕력」이나 『역대연표』 고려의 경우 오히려 전왕의 물년을 없애고 새 왕의 원년으로 삼아 한 해에 두 임금이 없게 만들었다고 보는 해석은 유년칭원의 본래의 의도가 아니었다.

한 해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중복되는 즉위년과 물년 중 어느 쪽을 없애는 게 타당할까? 물년을 없애지 않고 굳이 새 왕의 즉위년을 다음 왕의 재위연수에서 없앤 것은 효과도 관련이 있다. 물년을 없애고 이 해를 새 왕의 즉위년으로 삼는 것은 부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따라서 재위연수가 1년 짧게 된 것은 물년이 아닌 즉위년을 없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채상식이 강력히 주장한 「왕력」이나 『역대연표』에서 왕명에 즉위한 연대의 간지를 병기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즉위한 간지를 명기할 정도로 즉위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상현, 조경철은 이것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채상식은 『역대연표』의 삼국은 재위연수를 『삼국사기』 「연표」와 같은 즉위년칭원법으로 계산하고 물년을 제외하여 재위연수가 1년 적은 고려도 즉위년칭원법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역대연표』 백제 ‘혜왕 2(惠王 二)’는 혜왕이 598년부터 599년까지 재위하였음을 말하고, 『역대연표』 고려 ‘정종 을사 4(定宗 乙巳 四)’는 정종이 을사년(945)에 즉위하여 949년까지 재위하였지만 물년인 949년을 제외하고 948년까지로 계산하여 4년 동안 재위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12) 이부오, 앞의 글, 2014, 175쪽.



〈그림 6〉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 양 고조 대통, 중대통(오른쪽 8번째와 9번째 칸)/ 신라 법흥왕(오른쪽 5번째 칸).

그런데 채상식도 『역대연표』에서 삼국이나 고려가 모두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하면서도 삼국은 재위연수에 몰년을 포함시켰는데 어떤 이유에서 고려는 재위연수에서 몰년을 제외시켰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왕력」과 마찬가지로 재위연수를 가지고 칭원법을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대연표』에서 삼국과 고려의 재위연수에 1년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달리 볼 수는 없을까? 문제는 앞서 채상식이 언급한 「왕력」과 『역대연표』에서 왕명에 즉위한 간지를 부기할 경우 즉위년칭원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그의 논지가 관건이다. 「왕력」은 신라 법흥왕의 경우 ‘갑오립 리26년(甲午立 理二六年)[그림6]’이라 했고 『역대연표』 정중은 ‘을사 4(乙巳 四)[그림5]’라고 하였다. 법흥왕은 갑오에 즉위하였고 정중은 을사에 즉위하였다는 뜻인데 모두 즉위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위연수에서 모두 몰년을 제외하여 법흥왕은 26년 정중은 4년 재위하였다고 하였다. 그럴 경우 「왕력」이나 『역대연표』의 고려는 즉위년칭원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왕력」 신라의 ‘법흥왕 갑오립 리26년(法興王 甲午立 理二十六年)’과 『역

대연표』의 고려의 경우 '정종 을사 4(定宗 乙巳 四)'라는 형식의 기재방식처럼 「왕력」 상단의 중국과 『역대연표』의 중국 기재방식도 '양 고조 대통 정미 2(梁 高祖 大通 丁未 二)'와 '대송 태평흥국 7 병자(大宋 太平興國 七 丙子)'[그림4 화살표]라고 되어 있다. 채상식은 태평흥국의 예를 들어 병자가 개원년이고 태평흥국도 몰년을 제외하고 연호연수를 계산했다고 하였다.

필자는 여기에 「왕력」의 양 고조 대통의 예를 추가로 들어보고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대통은 정미(527)를 원년으로 해서 기유(529)까지 3년 동안 사용했으나 몰년을 제외하여 연호연수를 2년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기유(529)는 양 고조의 대통 3년이면서 고조 중대통 원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의 몰년을 제외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왕력」의 삼국표기방식이나 『역대연표』의 고려표기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왕력」과 『역대연표』의 중국 기재방식 즉 '양 고조 대통 정미 2(梁 高祖 大通 丁未 二)'나 '대송 태평흥국 7 병자(大宋 太平興國 七 丙子)'에 나오는 '정미'나 '병자'가 모두 개원년을 표시했고 그래서 연호연수가 1년 줄었다고 해서 이를 즉위년칭원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다. 다 알다시피 중국은 적어도 연호를 사용한 한나라 이후 유년칭원법이 대 원칙이었다. '정미'나 '병자'나 모두 단지 연호를 처음 사용한 연대를 말해 줄 뿐이다. 연호의 말년을 제외한 것은 대부분 같은 왕이 자신의 연호를 바꾸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다시 「왕력」과 『역대연표』의 '신라 법흥왕 갑오립 리26년(新羅 法興王 甲午立 理二十六年)'" "고려 정종 을사 4(高麗 定宗 乙巳 四)"의 간지와 재위연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간지나 연수계산 방식이 중국과 똑 같은데 이를 즉위년칭원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갑오나 을사가 즉위년 곧 왕위에 오른 해라고 해서 이를 즉위년칭원법이라고 해야 할까? 갑오나 을사는 단지 왕위에 오른 해를 말해 주고 있을 뿐이지 칭원법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칭원법의 원년은 아니다.

재위연수가 1년 적은 점은 유년칭원의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신라 법흥왕 갑오립 리26년(新羅 法興王 甲午立 理二十六年)'"이나 "고려 정종 을사 4(高麗 定宗 乙巳 四)"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법흥왕은 갑오에 왕위에 올라 이듬해 원년부터 26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고려 정종은 을사년에 왕위에 올라 이듬해 원년부터 4년 동안 다스렸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법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적용된 유년칭원법과 같다. 연호를 사용하는 중국의 경우 '연호+기간+간지'로 표기되어 칭원법에 오해가 없다. 그런데 『역대연표』의 신라, 고구려, 백제의 경우 연호와 간지를 생략한 채 '○○왕+기간'으로만 기재하여 혼란을 가져왔다. 그런데 『역대연표』를 작성할 당시 고려는 유년칭원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왕+간지+기간'으로 표시하였고 이때의 간지는 즉위한 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칭원법과 재위연수로 본다면 『역대연표』는 즉위년칭원법과 유년칭원법이 혼재하였다.¹³⁾ 『역대연표』 삼국의 즉위년칭원법은 『삼국사기』 「연표」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역대연표』 고려의 유년칭원법은 『삼국유사』 「왕력」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역대연표』 고려의 재위연수 기재방식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영향을 주었다.

지금까지 필자는 삼국시대의 칭원법을 『삼국사기』 연표, 『삼국유사』 「왕력」, 『역대연표』 등 고려시대 문헌을 통해 규명해 보았다. 고려시대 문헌과 아울러 당대 금석문 등의 자료를 통해 칭원법을 규명해 보아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였다. 몇몇의 사례가 보이지만 그것이 정확히 즉위년 칭원인지, 유년칭원인지 확정지을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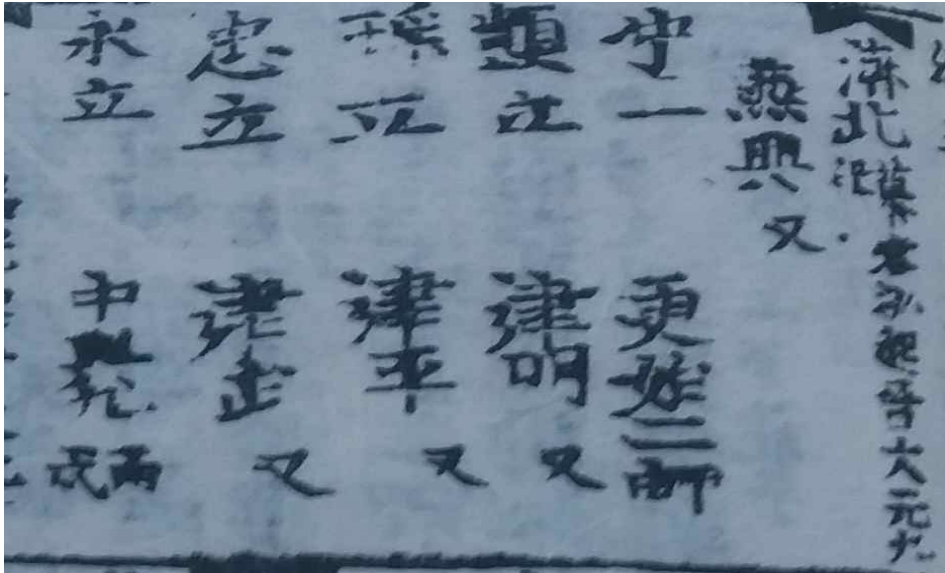
가령 예를 들어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창왕명사리감>의 명문은 ‘창왕13년테세제정해(昌王十三年太歲在丁亥)’라고 되어 있다. 창왕 13년이 정해년(567)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창왕 14년이 정해년(567)이다. 이를 두고 백제 당대에는 유년칭원법이 행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없지 않다.

성왕이 신라군에 의해 관산성에서 전사한 것은 유명한데, 기록마다 성왕이 전사한 시기를 달리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는 554년 7월 전사하였다고 한 반면 『삼국사기』보다 자세 한 기록을 싣고 있는 『일본서기』는 554년 12월 전사했다고 하였다. 더구나 『일본서기』에는 위덕왕의 즉위를 557년 3월 1일로 보고 3년 동안의 공위(空位)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덕왕의 공위기간을 계산해 보면 즉 554년 12월~557년 3월 1일에 걸쳐있다. 즉 개월 수로는 27개월이다. 이는 3년상 기간과 일치한다. 위덕왕은 성왕의 전사에 따른 왕권의 위기를 3년상으로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¹⁴⁾

그렇다면 『일본서기』의 554년 12월 전사기록은 7월에 전사한 성왕의 목이 수습한 때라고 볼 수 있다. 7월에 죽었다고 해서 온전한 시신이 없는데 장례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왕의 죽음이 12월이라면 위덕왕은 칭원법에 관련없이 다음 해 1월에 즉위하게 된다. 즉위년칭원법이라도 한 달을 넘겨 유월칭원을 하기 때문이다. 창왕명 사리감에 보이는 창왕 즉위의 1년의 차이는 그렇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을 두고 유년칭원법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본 글에서는 당대의 칭원법은 부차적인 문제로 하고 고려시대 삼국시대에 대한 칭원법의 인식이란 측면에서 접근해 본 것이다.

13) 『역대연표』의 칭원법에 즉위년과 유년이 혼재한 배경, 특히 삼국시대는 유년칭원으로 하면서 당대 고려는 유년칭원으로 변경했던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 다만 조선시대 편찬된 『고려사』가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유년칭원방식을 선택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13세기 후반 유교문화의 성숙에 따라 칭원법에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14) 조경철, 「백제 왕실의 3년상 - 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45, 2009.



〈그림 7〉 『역대연표』 제북(濟北)[서연(西燕)]의 연호 건명(建明), 건평(建平), 건무(建武) 모두 결획피휘하였다.

3. 피휘법의 비교연구

피휘는 특정한 글자를 피하는 것으로 보통 왕의 이름[휘]을 피하여 다른 글자로 대체하여 쓰는 걸 말한다. 특정한 인물의 특정한 글자를 피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료의 성립시기를 유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가령 고려 태조 왕건의 이름[휘]인 '건(建)'을 같은 뜻의 '립(立)'이나 건(建)의 마지막 획을 생략한 '건' 자를 썼다면 이 자료는 고려시대에 만들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자를 대자(代子)피휘라고 하고 후자를 결획(缺劃)피휘라고 한다.

고려시대 편찬된 『역대연표』에도 '건(建)'자가 수십 개 등장하는데 모두 '건'의 마지막 획을 생략한 결획피휘를 사용하고 있다[그림7].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피휘방식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대자피휘를 할 수도 있고, 결획피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글자는 아예 피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인 두 자료가 있을 때 두 자료의 피휘 양상을 통해서 두 자료의 상관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피휘를 통해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왕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이는 이근직이다.¹⁵⁾ 채상식은 『역대연표』와 「왕력」을 모두 일연의 편찬으로 보았지만 이근직은 두 자료

의 피휘를 비교하여 『역대연표』는 「왕력」과 관련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채상식은 「왕력」은 고려시대 편찬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왕력」 판본은 조선시대 판본이므로 조선시대 판본에서 피휘를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설을 옹호하였다.¹⁵⁾

『역대연표』에 적용된 피휘는 태조 왕건의 휘인 '건(建)'과 2대 혜종의 휘인 '무(武)'다. '건(建)'은 36차례¹⁷⁾ 보이는데 모두 결획피휘를 하였다. '무(武)'도 9회에 걸쳐 결획피휘를 하였다.¹⁸⁾

『삼국유사』 「왕력」에서 적용된 피휘는 혜종의 휘인 '무(武)'와 성종의 휘인 '치(治)'다. 그런데 「왕력」에선 22번이나 나오는 왕건의 휘인 '건(建)'의 경우 피휘하지 않고 그대로 '건(建)'자를 썼다. 물론 이것은 채상식의 언급처럼 조선시대 판본에서 모두 '건(建)'자로 고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역대연표』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번에는 정종의 휘인 '무(武)'의 사례를 검토해 보자. '무(武)'는 20회에 걸쳐 '호(虎)'로 대자 피휘하였고 7차례는 그대로 '무(武)'로 표기했다. 조선시대 판본이라면 '건'자와 같이 '무'자도 모두 '무'이어야 하는데 '호(虎)'가 20여 차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강변한다면 미처 고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¹⁹⁾ 이것까지 인정한다고 해도 『역대연표』의 '무(武)'자에 대한 피휘는 결획피휘였고, 「왕력」의 '무(武)'자에 대한 피휘는 '호(虎)'인 대자피휘였다. 『역대연표』와 「왕력」 둘 다 일연이 편찬하였다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역대연표』와 「왕력」의 찬자가 서로 참조했을 수는 있어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4. 국호의 비교연구

현재 남아있는 『역대연표』는 주(周), 대송(大宋)으로 시작된다. 각 나라의 임금과 연호.

15) 아래에서 사용된 『삼국유사』 피휘 회수는 이근직을 따랐다. 이근직, 「삼국유사의 피휘례 연구」, 하정룡·이근직, 『삼국유사교감연구』, 신서원, 1987, 고려시대 피휘에 대해서는 정구복, 「고려의 피휘법」, 『한국중세사학사 (I)』, 집문당, 1999를 참조.

16) 채상식, 앞의 글, 2014, 정구복도 고려시대 피휘가 조선시대 고쳐졌다고 보았다.

17) 이는 판독이 용이한 중국의 경우만 센 경우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판독되지 않는 부분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증가한다.

18) 한 사례는 '武'자를 그대로 썼다. 오각으로 보인다.

19) 이근직은 고려 때 판본과 조선 초기 판본에 변화가 없다고 보았다. 삼국유사의 피휘의 불철저성은 피휘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원간섭기에 편찬된 『역대연표』는 建과 武에 대한 피휘가 철저히 지켜졌다.

연호의 사용기간과 간지를 간단하게 기입하였다. 대송 다음에는 방치제국(方峙諸國)이라 하여 유촉(劉蜀), 손오(孫吳)부터 몽고(蒙古)까지 기록하였고,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기록하였다.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의 왕과 재위기간, 다음에는 해동제국치(海東諸國置)라고 하여 신라, 태봉, 발해, 일본의 연호를 기록하였다.

방치제국의 나라를 감안하여 『역대연표』에서 정통왕조로 여긴 나라를 유추하면 위-서진-동진-송-제-양-진-수-당-5대-대송이다. 『삼국유사』 「왕력」 상단에 보이는 중국의 역대 왕조는 전한-후한-위-진-송-제-양-진-수-당-5대로 되어 있다. 『역대연표』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연표』는 신라-고구려-백제-고려의 경우 모든 왕을 순서대로 언급하고 신라는 연호를 한데 묶어 표기하였다. 태봉과 발해는 연호만 언급하였다. 일본도 연호만 언급하였다. 『삼국유사』 「왕력」은 신라-고려²⁰⁾-백제에 가락을 덧붙였고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후고려와 왕건의 고려를 덧붙였다.

『역대연표』는 신라의 경우 진지왕, 백제의 경우 사반왕이 빠져있다. 「왕력」에는 진지왕과 사반왕이 들어가 있다. 더구나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도화녀와 비행랑’이라는 제목에서 진지왕과 도화녀와의 사랑이야기를 싣고 있다. 『역대연표』에서 빠진 진지왕을 『삼국유사』 찬자가 기이편에서 진지왕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야기를 실은 것으로 볼 때 『역대연표』 찬자와 『삼국유사』 찬자는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연표』는 ‘고구려’란 국호를 사용하였지만 「왕력」에는 고구려 대신 ‘고려’란 국호를 사용하였다.²¹⁾ 고려시대 고구려라는 국호대신 고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역대연표』에서 ‘고구려’라고 한 것은 『삼국사기』의 ‘고구려’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와 ‘고려’의 국호의 용례에서도 『역대연표』와 「왕력」은 차이가 난다.

현재 남아있는 『역대연표』에 의하면 『역대연표』가 정통으로 삼은 왕조는 후주와 대송이다. 후주 이전의 정통왕조는 앞부분의 자료 자체가 누락되어 알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대연표』의 방치제국조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치제국에 유촉(劉蜀)과 손오(孫吳)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위(曹魏)를 중국 삼국시대의 정통왕조로 보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역대연표』의 작성연대는 1274년부터 1278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추정되며 판각연대는 지원 15년 즉 1278년이다.²²⁾ 이때는 고려 충렬왕 즉위년이며 원나라가 1271년 몽고에서 대

20) 『삼국유사』 「왕력」은 고구려 대신 고려란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

21) 『삼국유사』는 「왕력」에서 동명왕을 ‘고려 동명왕’이라 하고 궁예의 세운 고려를 ‘후고려’라고 하였다.

22) 『역대연표』의 ‘고려’편 마지막은 ‘今上帝位甲戌’로 끝나고 있다. 갑술은 1274년(충렬왕 즉위년)을 말한다. 그리고 인흥사에서 『역대연표』를 개관한 연대는 1278년(충렬왕 4년)이다. 그래서 『역대연표』는 1274~1278년 사이에 편찬되었다고 보고 있다.

원으로 국호를 바꾼 지 7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원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런데 『역대연표』는 원나라를 정통왕조로 보지 않았다. 거란, 대금(大金)과 마찬가지로 방치제국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더구나 1271년에 국호를 대원으로 바꿨는데 종족 이름인 몽고(蒙古)로 표기하고 있다.

채상식은 고려가 몽고의 대원으로의 국호변경을 몰랐을 가능성 보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일부러 몽고라고 표기하였다고 보았다. 즉 “본 역대연표를 준비하고 간행한 시기가 비록 몽고의 지배하로 접어들었던 때이지만, 거란과 몽고의 대대적인 침략을 당한 경험을 가진 고려로서는 대송·대금이라는 표현과 같이 송과 금을 동아시아의 정통왕조로 파악하려는 의식이 강하였던 단면이라 하겠다”²³⁾라고 하였다.

여진이라고 하지 않고 ‘대금’이란 국호를 사용한 것이 대금을 정통왕조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대금도 방치제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대금을 정통왕조로 보기 어렵다. 정통왕조인 송을 대송(大宋)이라 표기했기 때문에 대금(大金)도 마찬가지로 정통 취급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 대송(大宋)이나 대금(大金)²⁴⁾ 모두 그 나라의 정식 국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다.²⁵⁾

또한 생각해 볼 문제는 1271년 몽고가 대원으로 국호를 바꾸었지만 남송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룬 해는 1279년이다. 따라서 본 『역대연표』를 작성할 당시는 고려는 대송을 정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일단 몽고를 방치제국의 하나로 설정한 것 같다.

한편 고려 사람이 거란과 몽고란 명칭을 특별히 비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문제다. 1123년 고려에 사신으로 온 송나라 서궁이 쓴 책이 『고려도경』이다. 『고려도경』 권 3에 “나라의 서북쪽은 거란·대금과 접경하였다(자국지서북 여거란대금접경, 自國之西北與契丹大金接境)”라고 하였다.²⁶⁾ 『고려도경』은 송의 신하 서궁이 송의 황제에게 바친 책인데, 대금이라고 해서 금을 정통왕조를 여겼다고 볼 수도 없으며, 대요(大遼)²⁷⁾라 하지 않고 거란(契丹)이라고 특별히 멸칭의 뜻을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거란도 멸칭의 의미라기보다 사람들이 흔히 요보다 거란으로 불러서 거란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몽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²⁸⁾

23) 채상식, 앞의 책, 1991, 163쪽.

24) 『金史』太祖 阿骨打 收國元年, “於是國號大金 改元收國”

25) 원의 정식 국호도 대원이다. 『원사』 권7, 세조 지원 8년 11월 을해, “建國號 曰大元”

26) 조동원 등 공역, 『고려도경』, 황소자리, 2005, 85쪽.

27) 『遼史』太宗 耶律德光 下 大同元年, “建國號大遼, 大赦, 改元大同”

28) 물론 중국에서 처음 ‘몽고’라 했을 때는 비칭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세월이 흐른 뒤 몽고란 이름으로

두 번째 가능성은 『역대연표』가 완성된 연대가 가장 빨랐을 경우를 상정한 1274년일 경우 인흥사에서 대원으로 국호가 바뀐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대원으로의 국호변경은 1271년 11월이고 충렬왕이 즉위한 때가 1274년 6월이다. 대원으로의 국호변경 사실을 알았더라도 변경 초기에는 이전 국호인 몽고를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²⁹⁾

그렇다면 『삼국유사』 「왕력」의 상단에 나타난 국호는 어떠한가? 표시된 마지막 중국연대는 “석진 천복 병신 8(石晉 天福 丙申 八)”이고 우리 측은 “병신통삼(丙申統三)”이다. 석진은 후진이라고도 하며 5대 10국 가운데 하나로 천복은 936~946년까지 사용한 고조 [석경당]의 연호이다. ‘병신통삼’은 왕건이 936년 후삼국을 통일한 것을 말한다. ‘왕력’은 송이 건국되기 이전에 마감하고 있어 『역대연표』의 대송, 대금, 요, 몽고 등의 국호가 「왕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럼 「왕력」을 제외한 『삼국유사』에서는 이들 국호가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삼국유사』에는 대략 대송(大宋)이 3회, 대금(大金)이 2회, 대요(大遼)가 1회, 거란(契丹)이 2회 보이지만 대원(大元)이나 몽고(蒙古) 등의 예는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몽고나 대원을 지칭할 경우 ‘서산대병(西山大兵)’, ‘서산병화(西山兵火)’ 등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자지원 갑자이래 대조사좌본국황화 쟁래첨례(自至元甲子以來 大朝使佐本國皇華 爭來瞻禮)’의 예에서 보듯이 ‘지원(至元)’이란 연호를 사용하고 원을 ‘대조(大朝)’라고 표현하는 등 원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몽고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나 긍정적인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채상식은 『삼국유사』 찬술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라는 현실에 대한 비판, 대응의식의 산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역대연표』에서 대원이 아닌 ‘몽고’라는 종족명으로 표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⁰⁾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역대연표』와 『삼국유사』의 편찬의의를 너무 축소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송에서 원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자 세계의 중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에 서서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등한 역사를 가졌다는 자부심이 생겨났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단군이 중국 요임금과 같은 때 조선을 건국했다고 서술하고 있다가나

이름이 고착된 상황에서 ‘몽고’라 불렀을 때는 그것이 꼭 비칭의 뜻이 있었다고만 보기 어렵다.

29) 『역대연표』를 보면 주, 대송의 왕계와 다음 방치제국의 왕계를 나열하고 중국의 연호를 나열 한 후 거란, 대금, 몽고, 신라, 고구려, 백제의 왕계를 나열한 다음 신라·태봉·발해·일본의 연호를 나열하고 있다. 중국과 거란 이후가 미세하게 구분되고 있다. 즉 거란 이하를 중국과 연결시키기보다 신라 이하의 나라와 묶으려는 느낌이 든다. 고려인의 북방민족에 대한 인식의 반영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0) 채상식, 앞의 책, 1991, 177쪽.

『역대연표』가 『삼국사기』 삼국 틀을 벗어나 발해³¹⁾를 포함시키고 중국과 요금원은 물론 일본까지 서술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세계사적 시야를 넓혀 준 점을 고려해야 한다.

5. 맺음말 -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본의 의의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왕력」과 『역대연표』 그리고 『삼국사기』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특히 왕위 재위연수와 칭원법, 피휘의 방법, 국호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삼국유사』 「왕력」은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삼는 유년칭원법이고, 『역대연표』는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삼는 즉위년칭원법과 유년칭원법이 같이 쓰였다.

둘째, 칭원법의 구분은 재위연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위한 해를 재위연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즉 1년이 적으면 유년칭원법이고, 즉위한 해와 죽은 해를 모두 재위연수에 포함시키면 즉위년칭원법이 된다.

셋째, 왕명에 간지가 병기되면 마치 이 해가 즉위한 해로 오해할 수가 있다. 왕명에 간지가 병기되면 이해가 즉위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즉위한 다음 해 곧 유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왕명에 간지가 병기되면 재위연수와 같은 주변 조건을 감안하여 즉위년칭원인지 유년칭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넷째, 『삼국유사』 「왕력」은 피휘가 불철저하지만 피휘를 할 경우 무(武)대신 호(虎)를 쓰는 대자(代子) 피휘를 하였고, 『역대연표』는 피휘가 철저하게 지켜졌고 피휘는 한 획을 줄인 결획피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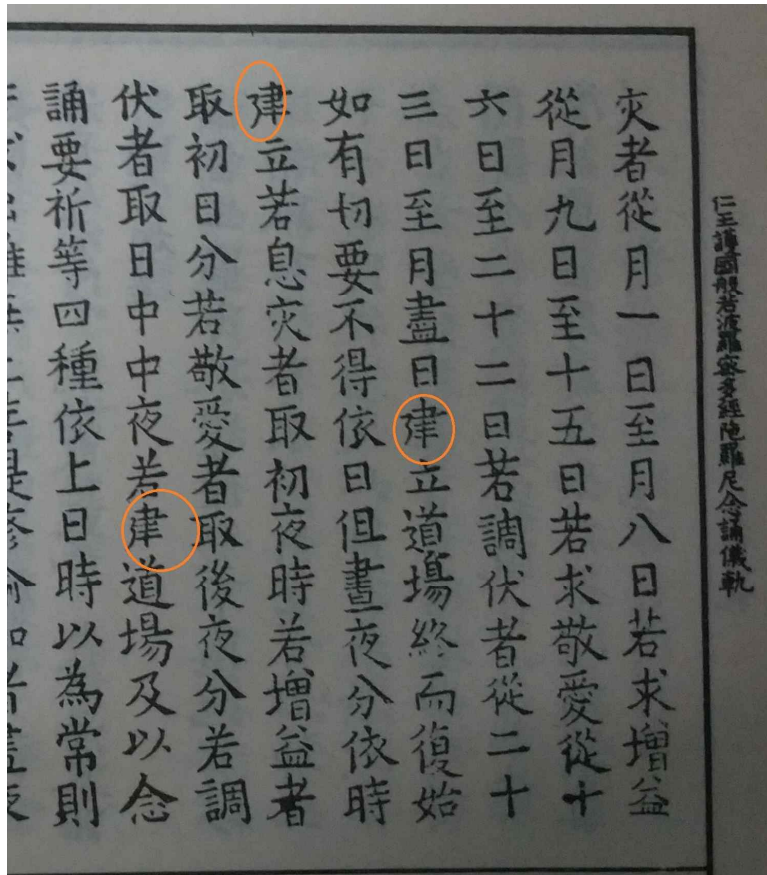
다섯째, 『삼국유사』 「왕력」은 고구려 대신 '고려'란 국호를 사용하였고, 『역대연표』는 『삼국사기』를 따라 '고구려'란 국호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역대연표』에서는 신라의 진지왕을 누락시켰지만, 『삼국유사』는 진지왕이 주인 공인 '도화녀와 비형량'조를 두었다.

이상의 검토결과 『삼국유사』 「왕력」과 『역대연표』가 서로 참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편찬자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대연표』는 중국, 요금원, 발해, 일본 등을 연표에 포함시켜 이전 연표와 다르게 세계사적 지평을 열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판)본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연표』

31) 『역대연표』의 발해 기술 의의에 대해선 이효형, 「역대연표와 삼국유사를 통해서 본 일연의 발해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8, 2007을 참조.



〈그림 8〉 고려대장경의 '建'자 피휘.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라니염송의궤』(고려대장경 37권 96쪽).

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자료다. 해인사 사간판본에 의해 알려진 존재다. 해인사 사간판본 중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알려진 『역대연표』에 대해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역대연표』 이외에 사간판본이 팔만대장경과 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내용이나 글자에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목판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피휘 등 문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건(建)'자의 경우 『역대연표』는 철저히 결획피휘를 하고 있는데 팔만대장경의 경전 가운데 마찬가지로 결획 피휘³²⁾를 한 경우가 많았다[그림8].

32) 이규갑 편, 『고려대장경이체자전』, 고려대장경연구소, 2000, 267쪽.

해인사 사간판본 전부를 인쇄한 해인사 사간본이 현재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해인사 사간판본을 직접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구의 편의상 먼저 해인사 사간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간본은 80여 년 전에 인쇄한 것이므로 사간판본 중에 마멸된 글자는 사간본을 참조해 보아야 한다. 사간본은 인쇄본이기 때문에 편집 과정상 『역대연표』처럼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을 것이니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고려후기 대장경 연구는 팔만대장경이 위주였으나 대장경과 별도로 판각된 사간판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대장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역대연표』는 해인사 사간판본 중에 하나지만 팔만대장경과 해인사 사간판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고려시대 불교사와 역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상현,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 - 왕력 편자에 대한 의문 -」, 『동양학』, 1985.
- 김상현,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박미선,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의식」, 『역사와현실』 70, 2009.
- 박용운, 「국호 고구려·고려에 대한 일고찰」, 『북방사논총』 창간호, 2004.
- 박용운, 「국호 고구려·고려에 대한 일고찰」, 『고려의 고구려 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2006.
- 이강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2005.
- 이규갑 편, 『고려대장경이체자전』, 고려대장경연구소, 2000.
- 이근직, 「삼국유사의 피휘례 연구」, 하정룡·이근직, 『삼국유사교감연구』, 신서원, 1987.
- 이부오, 「삼국유사 왕력에 나타난 기년인식의 배경」, 『신라사학보』 32, 2014.
- 이효형, 「역대연표와 삼국유사를 통해서 본 일연의 발해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8, 2007.
- 정구복, 「고구려의 고려 국호 개칭」, 『호서사학』 19·20, 1992.
- 정구복, 「고려의 피휘법」, 『한국중세사학사 (I)』, 집문당, 1999.
- 정구복, 『한국고대사학사』, 경인문화사, 2008.
- 조경철, 「백제 왕실의 3년상 - 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45, 2009.
- 조경철, 「역사계승의식과 정체성의 경계 - 고려 국호를 중심으로 -」,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서』, 경인문화사, 2012.
- 조경철, 「역주 삼국유사 왕력편의 성과와 문제점 - 「일본본」, 「정문연본」, 「고대본」의 왕력편을 중심으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행 『역주삼국유사』의 성과와 문제점』 (I),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학연구센터 국내학술회의 발표문, 2014.6.26.
- 채상식, 「지원 15년(1278) 인흥사간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1986.
- 채상식, 「인흥사간 역대연표와 삼국유사의 찬술기반」,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 채상식, 「인흥사간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삼국유사 목판 복각사업의 문화적 의의와 전망 학술발표문, 경상북도 군위군, 2014.
- 최범술, 「海印寺寺刊鏤板目錄」, 『동방학지』 11, 1970.

투고일: 2015. 12. 28

심사일: 2016. 2. 11

계재확정일: 2016. 2. 14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Annals of Successive Kingdoms in China and Korea* [歷代年表] Owned by Yonsei University and the Tables of Kings in the *Samguk-yusa* Wangreok [王曆]

Jo, Gyung-cheol*

This article compares three Chronological Tables of Kings in the *Samguk-sagi*, *Samguk-yusa*, and the *Annals of Successive Kingdoms in China and Korea* [歷代年表], with a focus on the years of the King's reign [在位年數], the ineffable rule [避諱], the principle used to define the first year of the King's reign [稱元法], and the appellation of the nations [國號].

First, in the *Samguk-yusa* Wangreok [王曆]'s Chronological Tables of Kings, the King's reign was defined with the first year of the King's reign [踰年稱元]. In the *Annals of Successive Kingdoms in China and Korea*, the King's reign was defined with the first year of the King's reign and the second at the same time. Second, the principle used to define the first year of the King's reign depends on the years of the King's reign. Third, if a Ganji [干支] was appended to the King's name table, that Ganji became the first year of the King's reign or the second year of the King's reign. Fourth, the *Samguk-yusa* Wangreok did not perfectly observe the ineffable rule [避諱], while the *Annals of Successive Kingdoms in China and Korea* did. Fifth, the *Samguk-yusa* Wangreok used the "Korea" appellation instead of "Koguryo". The *Annals of Successive Kingdoms* used "Koguryo", following the *Samguk-sagi*.

As a result, the *Samguk-yusa* Wangreok and the *Annals of Successive Kingdoms* had different authors.

* Director of History Institute for the Appellation of the Kingdoms[Nations], Gunpo, Korea.

Key Words: *Annals of successive Kingdoms in China and Korea* [歷代年表], *Samguk-yusa* Wangreok, chronological tables of Kings in the *Samguk-sagi*, principle used to define the first year of the King's reign, ineffable rule, appellation of nations